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오늘은 장애인 주일

4월 25~27일, 제3회 장애인복음화대회

충현교회당에서, 밀알선교단 주최로

제 3회 장애인복음화대회가 지난 1993년에 이어 세번째로 충현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장애인복음화대회는 한국밀알선교단이 장애인의 역할을 돕기 위해 91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 대회는 지방장애인 300명, 서울 장애인 200명, 봉사자 300명 등 총 1천여명이 참석하여 경배와 찬양, 부흥회, 특강, 노방전도, 공개방송 등으로 진행되는데 불신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적으로 삼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을 복음화 하고, 자원봉사자와 사역자 훈련을 하며 지역교회의 장애인 선교의식 고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대회의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로 삼았다. 주제성구가 말해주듯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장애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 주고 그 가족까지 함께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다.

주최측에서는 이를 위하여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 대회 기간 동안 함께할 민박 가정(2박 2식)을 구하고 있다(T 567-4070, 구내 423). 이 민박봉사에 참여한다면 섬김을 보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장애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기간 중 26일(수) 저녁 예배에 설교를 담당하는데 이외에도 홍정길 목사(남서울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박창윤 목사(삼보교

회)가 설교하게 된다.

또 김소영(전신마비장애인,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한미순(전신마비장애인, 구축화가), 서선석(지체장애인, 전도사), 이재서(맹인, 사회복지학 박사, 세계밀알 연합회장)씨 등이 간중시간을 갖는다.

또한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장애인 주일이다. 이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장애인들을 격려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에바다부가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수화찬양을 담당하게 된다. 또 지난 금요일(21일)에는 농아인과 장애인, 일반인이 함께 찬양하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

우리는 늘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주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돕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더구나 장애인 주일이나 장애인의 달이 있는 이 4월에는 평소에도 관심이 없었더라도 관심을 가져보고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베드로전도회 연합회

예수사랑 나다나엘 초청잔치

베드로전도회 연합회(40대 남성도 모임 전도회)에서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전도회 회원들이 불신의 친구나 이웃들을 초청하여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예수사랑 나다나엘 초청잔치를 개최한다.

5월 6일(토) 오후 5시 만나홀에서 개최될 나다나엘 초청잔치는 초대된 불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전도할 계획이다.

새가정부, 5월 가정세미나 개최

5월 7일, 14일, 21일, 오전 10시 30분 베다니홀

교회학교 새가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3주 동안 집회시간(오전 10:30 ~ 11:30)에 베다니홀에서 가정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 그리스도인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 가정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세미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지난해에도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세미나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금번 세미나에도 가정사역 전문 사역자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열게 된다.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 5월 7일 '사랑이 충만한 가정' (현순원 전도사)
- 5월 14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손길원 목사, 부산새중앙교회 협동목사)
- 5월 21일 '가정은 우리 낙원' (김수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충현실업인 전도회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특강

4월 24일(월), 오후 7시 베다니홀

충현실업인 전도회에서는 4월 24일(월) 오후 7시 베다니홀에서 월례회 및 특강으로 모인다. 이날 특강은 '부동산 실명제'에 대하여 하게 되는데 강사는 김영곤 박사(경영학박사<부동산학 전공> 성균관대학교 조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 책임연구원)이다.

실업인 전도회는 매달 월례회시에 실업인에게 필요한 특강, 또는 조찬기도회 등으로 모인다. 또한 성도들의 구인 구직도 알선해주고 있다.

직원모집

금번 충현교회 사무국에서는 인원충원에 따른 새로운 일꾼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아 래 -

1. 사무직(서무, 구매, 기타)
2. 인 원 : 남 〇 명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첨부), 타교인은 세례증명서 1부, 운전면허 소지자
4. 기한 : 1995년 4월 23일 한
5. 제출처 : 552-8200(402)

금주의 교회행사

1.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4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12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시작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금주에는 4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12교구가 시작한다. 12교구는 5월 1일(월) 오전 9시까지이다.

2. 예수사랑큰잔치 기도모임

교역자 / 4월 26일(수)
2부 새벽기도회 후 베다니홀에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교역자들 모두가 2부새벽기도회 후 베다니홀에서 모인다.

3. 충현실업인전도회 특강

4월 24일(월) 오후 7시부터

충현실업인전도회 월례 특강이 24일(월) 오후 7시에 베다니홀에서 열린다.

제목 및 강사는 부동산실명제, 김영곤 박사.



부활절축하음악예배

지난 주 부활주일일을 맞아 주일내내 온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보냈다. 각 부 교회학교에서의 축하행사, 예배시마다 부활의 주님을 즐거워하는 메시지,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찬양들, 저녁 찬양예배에서는 아멘찬양대가 특별히 준비한 'I AM'이란 곡으로 축하음악예배를 드렸다. 충현오케스트라의 반주 한층 돋보인 연주였고 참석한 교우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충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33 ●

마지막 추수

(계 14:14-20)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곡식 추수와 같은 성도들을 추수하는 일과, 포도 추수와 같은 악인들을 추수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1. 곡식 추수(성도 추수)

본문 14, 15절을 보면 곡식 추수가 나옵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환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곡식 추수 때에 추수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언급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인자'라는 말이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의 아들, 혹은 인자가 바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 즉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곡식 추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추수자는 환구름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를 내리는 구름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쉐키나'입니다. 그것은 연기와 비슷한 종류로 하나님의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바로 이 쉐키나 구름을 타고 가셨는데 재림할 때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첫째, 예수님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셔서 추수 때에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환구름 위에 있다는 말은 마치 어디를 갈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기다리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수레인 환구름을 타고 오실 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로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디아데멘, 왕관입니다. 왕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왕관을 쓰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심판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 왕관을 쓰시고 오실 것입니다.

넷째로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한 낫'이라는 말은 예리하고 날카롭게 달이 선 낫을 말합니다. 이 낫은 포도덩굴을 자를 때 사용되어지는 아주 예리한 낫입니다. 이제 주님의 추수할 자세가, 곡식을 거둘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추수할 대상은 곡식입니다. 물론 곡식 중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라도, 반쯤 익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곡식 추수는 바로 알곡 추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 주님의 제자들, 순교자들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거두워서 천국 곡간에 갖다가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말의 뜻은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심판의 기한이 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주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곡식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택한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됨없이 다 추수를 하려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안익은 곡식, 쭉정자들은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대로 전부 다 거두어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2. 포도 추수 (악인의 추수와 심판)

이렇게 곡식 추수가, 즉 면제 성도들부터 다치지 않도록 거둔 다음에는 포도 추수가 있습니다(17-20절). 이것은 두 번째 추수로 악인들의 추수입니다. 17절에 보면 천사들의 손에도 역시 추수하기 위해서 갈아 놓은 이한 낫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의 제단은 그냥 일반 제단이 아니라 기도의 제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은 성도들이 늘 제단에 얹드려서 드린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공기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금향로에 담기워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이와 같은 포도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포도 추수는 두 천사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는 주인이 혹시나 곡식 가운데 거두지 아니한 것이 있거나 양을 거둘 때에 거둬야 할 것들을 거둘 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보자없이, 무차별하게 완전하게 거둘 것입니다.

둘째로 추수의 장소는 20절에 성 밖이라고 했습니다. 성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의미로 교회 밖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때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는 말의 뜻은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심판의 기한이 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주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곡식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택한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됨없이 다 추수를 하려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서 교제를 어렵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본문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뚫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히 13:11, 12).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도 이제 성 밖에서, 교회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 이 추수의 대상은 포도송이라고 했는데 보통 성경에서 포도는 이스라엘을, 선민을 상징합니다(사 5:1, 2). 그러나 여기서는 불신자들,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을 포도로 표현한 이유는 포도를 잘 때 나오는 포도즙의 색깔이 피의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실한 일반 포도라기보다는 들포도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10에는 포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기 위해 바위를 파서 통치통 만들고 거기다가 많은 포도를 따서 깔로 씻어 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 통의 한 쪽에는 통로를 만들어서 즙을 받습니다(호 9:2, 암 9:13). 그런데 본문에서는 불신자들, 악인들의 심판을 이것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줄기에 던져져서 짓밟힐을 당할 것입니다. 포도주들에서 포도송이들이 진노의 밭 밑에 던져져 포도즙이 나온다는 것은 파멸을 뜻하는 말입니다.

넷째로 이 진노의 심판의 결과는 굉장합니다.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뚫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일천 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고 했습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말골레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살육, 아주 큰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천 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고 했습니다. 일천 육백 스다디온, 1600=40×40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시험 숫자입니다. 그런데 1600은 이 시험의 숫자를 두 번 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총족된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1600 스다디온의 크기는 약 200마일 정도인데 이 크기는 유대나라 크기만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살육이 있을 것이라 뜻입니다.

3. 심판을 앞둔 성도의 자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추수가 있게 되고 심판이 다가올텐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11-14절에 우리가 행해야 할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땅히 이 시기를 알고 영적으로 쫓겨 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둘째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자다가 깨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잠에 들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타락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은 기도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어두움의 일, 즉 옛날 불신자였을 때의 대담한 생활, 거짓된 생활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의의 세마포 옷을 입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자도 깊이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 낮에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고 했습니다. 밤에나 집에서 옷을 벗고 자는 것이 낮에는 벌거벗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생활하라는 말은 방탕을 배려라는 말입니다. "방탕과 술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재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경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심판을 앞둔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서 이 시기를 알아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두움의 모든 일들, 즉 믿지 않는 이들의 세속적인 생활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5세계선교대회(GCOWE '95) 개최

전세계 200여 국가 기독교 대표 참가하는 기독교 UN 총회

5월 17~26일까지 서울에서-충현교회, 사랑의교회, 햇불회관 등에서

기독교 UN총회라고 불리우는 '95세계선교대회(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95)가 오는 5월 17일~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이 기간중 충현교회에서 몇개의 중요한 모임을 갖게 된다. 또한 김창민 원로목사는 이 대회의 명예대회장에,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의 CNN, NBC를 비롯한 100여개의 방송, 신문사가 특파원을 보내고 있다. 세계교회의 이목이 집중될 이 행사를 알 필요가 있어 이를 조사, 게재한다.(편집자)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은 전인류적 선교의 필요성에 따라 일련의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해 왔다. 1966년 10월 베를린에서 1,200명의 각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로잔대회(1974년), 암스텔담(1983, 1986), 싱가포르대회(1989), 로잔II 마닐라대회(1989) 등으로 이어지는 대회들이 그것들이다.

규모나 참가자들의 면면을 통해 기독교 UN총회라 불리는 이 대회에는 전세계 200여 국가의 대표 4,500명이 참가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기독교 현안문제를 비롯하여 세계복음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개최국인 한국에서는 300명의 대표단이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대회 기간중 '서울선언'을 채택하여 세계 기독교가 2,000년을 목표로 획기적인 연합, 일치, 운동을 일으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5세계선교대회(GCOWE '95)의 목적은 전세계 기독교 대표들이 세계복음화 상황을 검토하고 각국의 상황에서 2000년대까지의 선교전략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세계복음화의 진척상황에 대한 중간 평가'로 특별히 이번 대회는 제3세계권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적으로 참가한다는 데 지금까지의 대회와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국제대회의 참가자는 대부분 서구권 지도자들이었고 그로인해 이런 대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이 제3세계권의 필요와 상황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츰 세계 기독교의 흐름이 제3세계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21세기 기독교 사역은 이들 국가들에 의해 주도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다.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도 이런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비서구 국가중 기독교 사역의 선두 주자와 역할을 한국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아프리카, 남미, 동구권, 아시아권 등 제3세계 참가자들을 한국 교회가 후원하고, 선교헌신자와 기도후원자가 이들과 3차 영친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 한국 교회 선교사상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일간 계속되는 이 대회의 프로그램은 전체 모임뿐만 아니라 워렌 회별, 국가별 사역과 전략 토의 시간에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어 현실적인 전략을 토의하고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을 두고 있다.

전체모임(Plenary)에서는 토마스 왕(국제 대회장), 김준곤 목사(한국 준비위원장), 루이스 부시(국제 총무), 루이스 팔라우(방송 설교가), 빌 브라일(국제 C.C.C 총재) 등의 메시지가 있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각 위원회들의 활동과 전략발표와 국가별 사역 보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 모임(Track)에서는 위원회 사

운 활동방향을 수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먼저 전체모임에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역자들의 메시지가 있게 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며 일부 선별된 국가들의 사례발표로 진행된다. 전체 프로그램중 1/3은 위원회별 전략

상황, 자료들을 분석하여 주요언어들로 번역된 핸드북, 소식지 등을 통해 선교사역을 지원한다.

④ 목회자위원회(Pastors Track) /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그들의 교회가 복음 전파, 선교,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교회 내에서 평신도를 훈련하도록 돕는다.

⑤ 기도위원회(Prayer Track) /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기도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미전도 종족과 100개의 미복음화된 도시들 그리고 10/40미전도 창문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것.

⑥ 방송선교위원회(Radio Track) / 선교사가 갈 수 없는 미전도 지역에 각 언어로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

⑦ 교회개척선교위원회(Saturation Church Planting Track) / 모든 계층과 종족의 500~1000명 단위로 750만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⑧ 전도와 제자화위원회(Saturation Evangelism) / 모든 언어집단 및 인구 100만 단위 지역(MPTA)마다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게 하고, 수백만 개의 새신자 소그룹 지도자들을 훈련시킨다.

⑨ 미전도종족선교위원회(Unreached People Groups Track) / 2000년까지 대표적인 2000여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복음화하기 위해 기도, 정보 자료 등을 제작한다.

⑩ 여성위원회(Women) / 교단이나 선교회를 총망라한 전세계의 여성들을 세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

⑪ 선교인력개발위원회(New Missionaries Track) / 2000년까지 전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헌신된 선교 인력들을 개발하여 파송한다.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95 세계선교대회 운영본부에서는 이 대회를 위해 봉사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기간은 전체 또는 몇날도 가능하다.

· 자원봉사 분야는 아래와 같다.

- 숙소안내, Help Desk, 진행요원, 출·입국 안내요원, 식사안내, 자료배포, 전선, 등록, 중보기도, 통역, 경비, 의료, 차량봉사, 번역, 미디어/보도, 일반서비스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학부에 신청하면 된다.

5월 20일에는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95 세계선교대회(GCOWE '95) 대회 참가 대표들과 대학생 등 약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선교 희망국가별 모임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한국의 밤'도 계획되어 있다

역 평가와 주요 목적을 점검하고 목표 성취 과정에서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별 모임(National)에서는 사역의 국가별 평가와 더불어 사후 계획과 진척 과정을 확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햇불선교센터를 비롯하여 충현교회, 사랑의교회, 교육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 강남구 지역을 연결시키는 대규모 국제회의 운영체제가 준비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외무부 등 정부 기관들과의 협조 관계도 진행중에 있다.

또 5월 20일에는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95세계선교대회(GCOWE '95) 대회 참가 대표들과 대학생 등 약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선교 희망국가별 모임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한국의 밤'도 계획되어 있다.

주최국인 한국은 300명의 대표가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분야별, 교단별, 단체별, 지역별 대표들의 신청을 통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선정된 대표들은 전체회의, 위원회 회의, 국가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95세계선교대회(GCOWE '95)는 예년의 국제대회와 몇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대중집회 중심의 대회가 아닌 전략회의(Consultation)라는 것이다. 1,000년까지 전세계 국가별, 위원회별 세계 선교 목표들을 점검하고 새로

을 검토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설정한 사역과 목표를 국가별, 대륙별 평가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 국가별, 대륙별 모임이 1/3을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모아진 사역의 방향을 국가 상황에 맞게 국가 사역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다.

이 기간 중에는 전략 회의 이외에도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생미션 2000'이다. 이 대회는 5월 20일(토) 오후 3시부터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전국의 10만명 대학생과 기도후원자, GCOWE '95에 참가중인 국가대표 등이 참가하는 종합 선교축제로 진행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셀렘 축구팀이 헌신경기를 갖는 것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가수들이 참여하는 음악회, 무용제 등 문화행사도 빼놓아질 예정이다.

주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선교위원회(Cities Track) / 복음화가 가장 안된 200개 도시들과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도시 빈민들을 복음화 한다.

② 문서선교위원회(God's Word & Literature Track) / 문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 하는 기관들을 일으키며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돕는다.

③ 자료조사연구위원회(Nat'l Research Track) / 전 세계 국가별 선교

토·막·소·식

◆ 임마누엘 찬양대는 4월 29일 토요일 연습 후 임원단합대회를 차신득 장로 집에서 갖는다. 5월 5일에는 임마누엘찬양대 단합대회를 관악산을 등반한다. 서울대 정문 앞에서 오전 9시까지 집합.

◆ 아멘찬양대는 5월 5일 경기도 포천으로 야외회를 떠난다. 아침 8시 교회에서 출발한다.

◆ 초등1부는 오늘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한다. 범위는 고린도전서 13:1-13.

◆ 중등1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교사연속기도회로 모인다. 5월 12일~6월 10일까지 교회에서 한시간 정도 기도모임을 갖는다.

또한 예배 후 출입구 및 계단, 복도 등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 몹시 혼잡스러운 실정기에 중등1부 면려회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 "질서를 지킵시다" "좌측통행"이란 피켓을 들고 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통로에서, 계단에서, 출입구에서 조금 양보하고 좌측통행을 한다면 다소 좋아질 것 같다.

◆ 중등2부는 오늘 오후 집회시간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 고등부는 공과공부 후 소그룹 연합기도회로 모인다. 또한 6월 4일은 예수사랑 큰잔치 총동원주일로 모이는데 적

어도 한 사람씩 대신자를 작성하고 기도하여 함께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 대학부는 5월 4, 5일에 성령의 대학부 작은 수련회로 모인다. 장소는 충현 기도원.

◆ 청년2부는 30일 미혼회원 전원이 총신대학원 교정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한다. 시간은 2시~4시까지이며 장소는 409호.

◆ 장년3부는 5월 28일 성경암송대회를 연다. 범위는 로마서 8:18에서 39절.

◆ 새가정부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 금식하며 모은 헌금을 케냐의 고은빈 선교사에게 선교비로 보냈다.

◆ 새가족 양육부는 오늘 총출석주일로 잃은 양, 장기결석자를 대상으로 전도운동을 펼친다. 또한 5월 14일에는 성경암송대회를 여는데 시편 1:1-6, 시 23:1-6, 고전 13:4-13절 중 하나를 택해서 암송하면 된다.

◆ 사랑부는 사랑부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사랑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인 마석 신망에복지원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사랑부 차량운전 봉사자 모집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매 주일 사랑부에서 8:00~10:30, 12:30~15:00에 운전으로 봉사할 성도를 찾습니다.
연락, 전화552-8200 교환(구내) 420, 404

중등1·2·3부 연합

교회주변 학교전도 실시

중등1·2·3부는 서로 연합하여 교회주변의 언북, 역삼, 언주중학교를 집중으로 전도할 계획이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각 부서단위로 준비하는 중등1·2·3부는 교회주변의 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의 1·2·3학년들을 대상으로 전도한다. 학교마다 담당교사를 두고 당일 학교에서 운동경기 등을 펼치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접촉하고 함께 나온 불신학생들을 전도할 계획이다.

예수사랑 큰잔치 전에 2, 3차 정도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중등1부의 예수사랑 큰잔치는 6월 18일, 중등2부는 6월 18일, 중등3부는 6월 4일이다.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표어 공모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위원회에서는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예수사랑 큰잔치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표어를 공개 모집하기로 정하고 오늘부터 표어를 모집한다.

표어는 부르기 쉬우면서 짧고 전체의 의미를 잘 함축한 내용이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30일까지 제출처는 각 교구 간사실 및 사무국 또는 <주간 중헌> 편집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신성중 목사: 4/24(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4/26(수) 장애인복음화 대회 설교, 4/27(목) 오산리 기도원 교역자 세미나 강의
-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대신자를 작성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시고 예수사랑 큰잔치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일만명이 한사람씩 일만 영혼 구원한다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주요 일정

- 특별새벽기도회 / 5월 22일(월) ~ 5월 26일(금)
- 초청전도집회 / 6월 7일(수) ~ 6월 9일(금)
- 예수사랑 큰잔치 / 6월 11일(주일) 1~V부 예배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기도제목

-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교회와 개인이 부흥되게 하소서
- 대신자를 바로 정하게 하시고 결실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 모든 전도운동, 기도운동들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9595

95년도 예수사랑큰잔치를 위하여
매일 오후9시부터 5분간 기도합시다.

9595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다부”

박 상 준
(경로, 예배다부 부장)

농아인들은 단지 들을 수 없다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힘들고 고달픈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침묵의 세계이므로 소리없는 어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아인들은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할 것들이다.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 수화통역과 자막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음을 들을 권리 등이 그들에게는 결실하게 요구된다.

한국에는 대략 30-35만 정도의 청각장애가 있는 농아인들이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더우기 복음을 듣는 일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농아인들을 위한 개별화된 선교와 의사소통 및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다. 중헌교회 농아부(예배다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와같은 농아인의 의사소통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전폭적인 후원아래 여러 가지 일을 해오고 있다. 농아인들만의 예배나 집회시에는 수화가 주된 의사소통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OHP와 VTR 그리고 시청각 기계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당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시에는 수화통역뿐만 아니라 자막 통역까지 나가고 있다. 수화통역하는 TV화면 밑에는 자막으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화를 모른다 할지라도 글만 알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찬송, 기도

등 모든 예배와 집회에 소외됨없이 참여할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농아인이란 한사람도 하나님의 팔복을 듣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모든 교육기재와 설비, 환경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다. 우선 농아인 성도들과 학생들에 예배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신앙교육의 효과도 훨씬 좋아졌다. 자연히 성도들도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다. 그리고 수화교육의 활성화는 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많은 전령인 교사들과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을 나오게 하였다.

농아인들과 전령인들이 다음의 벽을 알고 고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으로 농아인 사역자들도 채용되고 있다. 현재 60여명의 교사중 12명이 농아인 교사이며 이 중에는 신학생들도 있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신 분도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숙한 전령인 수화통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헌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농아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고, 또 농아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

황에서 효과적인 사역이 불가능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수화를 배워 농아인과 만나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헌신적인 수화통역자들에게 이들도 없이 빛도 없이 철저한 농아인의 조력자로서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밝음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농아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중헌교회 농아부가 있게 된 것이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다.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노력을 결심하는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중헌교회에는 이미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다부와 사랑부를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농아인들이 주일 저녁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열심히 준비하였고, 장성껏 많은 여러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들리지 않을지라도, 말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온 몸으로 찬양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는 우리 농아인들에게 더욱 큰 격려와 기도, 관심을 부탁 드린다. 내년에는 보다 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